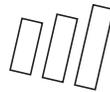


MZ세대의 사회적경제 수요-공급측면 잠재성 탐색

가치소비자 측면과
사회혁신 주체측면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2022-2

MZ세대의 사회적경제 수요·공급측면
잠재성 탐색
-가치소비자 측면과 사회혁신
주체측면을 중심으로-

김형돈 · 신이수 · 정창윤 · 최은호

【연구진】

김형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장
신이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
정창윤 NEST 연구원
최은호 NEST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세대별 정의(Z, M, X, B)	13
제2절 MZ세대의 특성	26
제3절 XB세대의 특성	32
제3장 분석결과	36
제4장 결론	87
참고문헌	92

<표차례>

<표 2-1> 세대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13
<표 2-2> 세대별 출생연도 정의	25
<표 3-1> 세대_2그룹 빈도분석	36
<표 3-2> 세대_4그룹 빈도분석세대_4그룹 빈도분석	36
<표 3-3> 세대_2그룹 * 일반_고관여시민 교차표	37
<표 3-4> 세대_4그룹 * 일반_고관여시민 교차표	38
<표 3-5> 세대_4그룹 * 기부경험 교차표	39
<표 3-6> 세대_4그룹 * 자원봉사 경험 교차표	40
<표 3-7> 세대_2그룹 * 기부경험 교차표	41
<표 3-8> 세대_2그룹 * 자원봉사 경험 교차표	42
<표 3-9> 세대_2그룹 *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	43
<표 3-10> 세대_4그룹 *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	44
<표 3-11> MZ세대와 기성세대 2집단 비교 (n=1299)	46
<표 3-12>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 4집단 비교 (n=1299)	50
<표 3-13>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 4집단 비교 사후분석	51
<표 3-14>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60
<표 3-15>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61
<표 3-16>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62
<표 3-17> 2집단 회귀분석 (공동체의식)	63
<표 3-18>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	64
<표 3-19>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개인내적요소)	66
<표 3-20>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대인관계요소)	67
<표 3-21>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68
<표 3-22>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참여활동적극성)	69
<표 3-23> 2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관심)	71
<표 3-24> 2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노력)	72
<표 3-25>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73
<표 3-26>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74

<표 3-27>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76
<표 3-28> 4집단 회귀분석 (공동체의식)	77
<표 3-29>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	78
<표 3-30>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개인내적요소)	79
<표 3-31>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대인관계요소)	81
<표 3-32>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82
<표 3-33>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참여활동적극성)	83
<표 3-34> 4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관심)	85
<표 3-35> 4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노력)	86

<그림 차례>

[그림 1-1] 연령별 분석 예시	11
--------------------------	----

제1장 서론

- 가치소비자로서 청년 측면
 - 신 소비 주도층으로 향후 15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계층임
 - 단순 소비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 아웃(Meaning Out) 소비 트렌드 확산하고 있음
 -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함

- 사회혁신 주체 측면
 -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협력함
 -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혁신 활동가로 떠오르고 있음

- 연구 질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MZ세대는 새로운 가치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MZ세대는 사회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연구 데이터: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연구(2020) 설문데이터
 - ‘일반 서울시민 1,002명: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 사업 활동」 미참여자
 - 층화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서울시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고 해당분포와 동일한 할당을 두어 표집하되 결측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의 1.5 배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함

- 고관여 서울시민 300명: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 사업 활동」 참여자(데이터 미확보)
 -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같이살림, 주민기술학교,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에 참여한 시민과 2020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역생태계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한 시민 대상으로 구성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자체의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설문 참여 요청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필요성 등을 담은 안내문 제공)

-중도탈락 및 결측을 예상하여 총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 연구 데이터 수집 시기

○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코로나 시기: 2020.01.20. ~ 현재

□ 세대 조작적 정의(연나이 기준: 현재년도-출생년도)

○ M세대: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28~42

○ Z세대: 1995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18~27

○ 기성세대: 1979이전 출생: 43~

-40대에서 60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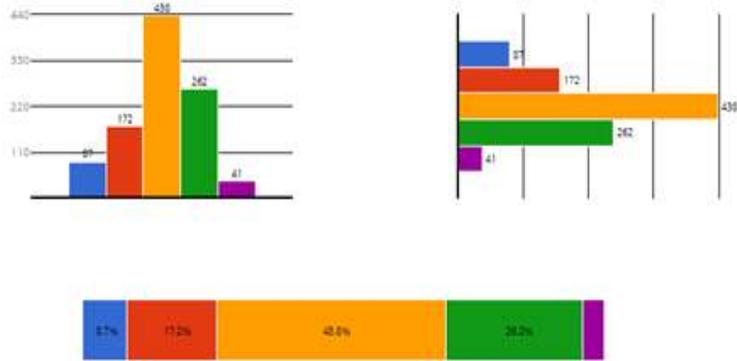
□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2020) 연구에서 연령별 분석을 했음(<그림 1> 참고)

○ 그러나 하나의 연구주제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음

○ 연령분류 범주가 20대, 30대 등으로 MZ세대 조작적 정의와 차이가 있음

〈그림 1-1〉 연령별 분석 예시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다음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십시오. 사회적경제 용어를 알고 있다



구분	답안	남		여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매우 그렇지 않다	7.1	55	10.2	52	9.4	19	9.3	19	9.0	19	9.0	19
2	약간 그렇지 않다	15.9	78	18.4	94	26.2	53	15.6	32	9.9	21	16.6	35
3	보통이다	40.0	196	47.5	242	39.1	79	40.0	82	43.1	102	41.7	88
4	약간 그렇다	32.2	158	20.4	104	21.3	43	29.8	61	28.8	61	28.0	58
5	매우 그렇다	4.7	23	3.5	18	4.0	8	5.4	11	4.2	9	4.7	10
	총합	100.0	490	100.0	510	100.0	202	100.0	205	100.0	212	100.0	211
	평균		3.1		2.9		2.8		3.1		3.1		3.0
	Bottom 2	23.1	113	28.6	146	35.6	72	24.9	51	18.9	40	25.6	54
	Top 2	36.9	181	23.9	122	25.2	51	35.1	72	33.0	70	32.7	69

자료: 정선희·정승애(2020: 12).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 일반시민 조사결과

독립변수(비교집단)

- [1단계 분석] MZ 세대 그룹과 기성세대 그룹 비교분석
- [2단계 분석] M세대 그룹, Z세대 그룹, 기성세대 그룹 비교분석

분석방법

- 교차분석 χ^2 검정
- 평균 비교 T-Test(두 집단, M세대와 Z세대 등: 변수통제 불가능)

- ANOVA 분석(변수통제 불가능)
 - One way ANOVA(일반 시민과 고관여 시민 통합해서 분석)
 - Two way ANOVA(일반 시민과 고관여 시민 구분해서 분석: 상호작용 효과)
- 더미변수 회귀분석(변수통제 가능)
- 리커트척도 측정 질문그룹을 하나의 잠재변수로 보고 구조방정식(SEM) 모형 분석도 가능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세대별 정의(Z, M, X, B)

<표 2-1> 세대별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No	저자/ 역자	근거	세대 구분 정의	세대구분
1	오영환 정양현 (2022)	통계청(2021), 주용 완,(2021), 인구총 조사(성인지통계)	<p>‘베이비부머 세대 (1955년에서 1963년생, 2020년 기준 57세에서 65세)’가 세대적 특성을 보이는 형태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도 MZ세대 여성기술창업이라는 세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용어를 사용</p> <p>MZ세대는 1980년에서 2004년생까지 출생하여 2020년 기준으로 16세에서 40세까지를 지칭한다. 1980년에서 1994년생을 일컫는 ‘M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에서 2004년생을 일컫는 ‘Z세대’를 합한 것이다.</p>	<p>Z : 1995년-2004년 M:1980년-1994년 X:1965년-1979년 B:1950년-1964년</p>

2	<p>손정희 (Shon Jung-hieh), 김찬석 (Kim Chan-souk) , 이현선 (Lee Hyun-seon) (2021)</p>	<p>통계청</p>	<p>정의 없음</p>	<p>Z : 1996년-2010년 M:1979년-1995년 X:1965년-1978년 B:1946년-1964년 S:~1945년(사일런트세대)</p>
3	<p>김수정 (2021)</p>	<p>사 회 과 학 분 야 (Kertzer, 1983), 2020년 국회미래연 구원 자료 사물 <한 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통계청과 맥킨지코리아 그리 고 박민진 외(2021)</p>	<p>1. 친족 관점에서의 항렬 구분 2. 비슷한 시기에 출 생한 사람들의 공유 경험으로 구성된 코 호트(cohort)로 구분 3. 생애주기 상의 같 은 단계, 동질적집단 (Acock, 1984) 4. 역사학적 관점에 서 같은 특정 시대에 생존했던 사람들</p>	<p>Z : 1995년-2007년 M:1980년-1994년 X:1965년-1979년 B:1950년-1964년</p>
4	<p>서경민</p>	<p>네 이 버 지 식 백 과</p>	<p>정의 없음</p>	<p>Z : 1995년-2004년</p>

	양위주 (2022)	(2021)		M:1980년-1994년 X:내용없음 B:내용없음
5	사혜지 (2022)	근거 없음	정의 없음	Z : 1998년-2003년 M:1980년-1997년 X:내용없음 B:내용없음
6	심현준 심섭희 (2021)	탁진규(2021)	정의 없음	Z : 1995년-2010년 초 M:1980년초-2000 년초 X:내용없음 B:내용없음
7	강윤지 김상훈 (2022)	Hong(2020)	정의 없음	Z : 1980년-2001년 M:1980년-2001년 X:1952년-1979년 B:1952년-1979년
8	서리, 박현정 (2022)	Luna-Cortés, López-Bonilla, & LópezBonilla(2019	Schewe & Meredith, 2004; Berraies et al.,	Z : 1990년중-2010 년초 M:1980년초-1990

			2017 동일한시기에 태어나 고자라며사회적으로 비슷한사건을경험하 는개인의그룹으로가 치관이나신념, 선호 도, 소비성향이비슷 하며유사한행동양식 을보인다.	년초 X:내용없음 B:내용없음
9	장석준 (Seckju n Jang) , 유 승관 (Seung Kwan Ryu) (2022)	이정우(2021), 박주 현, 이연준(2019), Addor(2011)	정의 없음	Z : 1980년초-2000 년초 M:1980년초-2000 년초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0	허윤 황진숙 (2022)	정지영, 박상현, 원 영신(2019)	정의 없음	Z : 1990년중-2000 년초 M:1980년초-1990 년중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1	이 태 경 양 위 주 (2022)	근거 없음	디지털 미디어 사용 경험을 공유한 동기 집단을 기준	Z : 내용 없음 M:내용없음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2	김 소 연 김 지 영 전 재 연 류 라 임 구 유 리 (2022)	근거 없음	온라인과 디지털 기 기 사용에 친숙	Z : 10대-20대 M:10대-20대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3	장 석 준 (2022)	근거 없음	정의 없음	Z : 10대-30대 M:10대-30대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4	강 준 혁 정 윤 지 이 준 성 (2022)	이상걸, 이애리 (2021), 김용하, 임 성은(2011)	사회형태적으로 차 별화된 특징	Z : 1990년중-200 년0초 M:1980년초-2000 년초 X:1965년-1980년 B:195년5-1964년

15	고아라 이규민 (2022)	네이버지식백과	기성세대에 비해 솔 직하고 자기표현이 강한	Z : 1990년중-2000 년초 M:1980년초-2000 년초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6	홍정화 (2022)	권호순(2020)	동일한 기간 동안 태 어나고 청소년기/성 인기 초기에 비슷한 외부 사건을 경험하 는 개인들의 그룹으 로 정의	Z : 1997년- M:1980년-2010년 중 X:1970년-1980년 B:1955년-1963년
17	박현아 이인희 (2022)	근거 없음	출생하고부터 디지 털 기기와 친숙하여 대부분의 활동을 모 바일과 SNS로 소통 하며 개인주의 성향 이 높은 세대	Z : 1995년-2010년 M:1980년-1995년 X:내용없음 B:내용없음
18	김미예 /Kim, Miyea	한국 소비자원 '2019 한국의 소비 생활지표	경제활동과 함께 소 비 결정에 참여하는 20대 이상	Z : 1980년-2010년 M:1980년-2010년 X:내용없음

	1, 옥 경 영 /Kyung Young Ohk 2 (2021)			B:내용없음
19	김도형 (2021)	근거 없음	정의 없음	Z : 20대-30대 M:20대-30대 X:내용없음 B:내용없음
20	김종우 (2021)	근거 없음	기존의 세대와는 확 실하게 구분되는 디 지털 매체세대	Z : 1995년-2005년 M:1995년-2005년 X:내용없음 B:내용없음
21	박민진 민보경 이민주 (2021)	통계청, 맥킨지코리 아(2020)	일반적으로 세대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 나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한 세대'로 정의	Z : 1995년- M:1980년-1994년 X:1965년-1979년 B:1950년-1964년
22	이상걸 이애리 (2021)	환경경제용어사전 (2 0 2 1) , Freegrace(2020), Wikipedia(2021)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한 이들 세대 간 차 이점	Z : 1990년초-2000 년초 M:1980년초-2000 년초 X:1965년-1980년 B:1955년-1964년

23	정혜승 성민정 (2022)	Fry(2018), Lee & Kim(2021)	모바일 환경에 익숙 하고 변화에 민감하 다는 점	Z : 1981년-1996년 M:1981년-1996년 X:1965년-1980년 B:내용없음
24	한미영 문경화 (2022)	근거 없음	설문조사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	해당 없음
25	배석환 ; 박형 수 ; 문 국경 (2022)	김선애(2021) 등	MZ세대가 기성세대 보다 공정성이 혁신 행동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것	Z : 30대 이하 M:30대이하 X:40대이상 B:40대이상
26	이애리 (2022)	김용섭(2021)((날 카로운상상연구소)	정의 없음	Z : 1997년-2012년 M:1982년-1996년 X:1969년-1981년 B:1955년-1964년 S:1910년-1945년
27	민지은	Huh &	정의 없음	Z : 1980년-2010년

	한경수 (2021)	Kim(2003), Kim & Huh(2007),Kim(2011),Jooetal.(2020)		M:1980년-2010년 X:1965년-1979년 B:내용없음
28	Howe, N., and W. Straus (2000)	근거 없음	M세대를 정의하기 위한 특징등을 정리 함 -특별성:참여에대해 보상 -보호받는:구조화된 환경, 규칙과체계의 시행 -팀워크지향적:그룹 에서일을잘함,사회 적으로할당함 -자신감:매우낙관적 /멀티미디어에정통 함, 자신만의지식을 만드는데도움을원함 -압력받는:평가가있 을때수행함,즉각적 이고지속적인피드백 을원함 -성취하는:좋은성적 에도전하고다양한방 법들을시도함 -관습적:문화적차이 들을존중함	M세대의 특성 등을 서술하였지만, 나이 (출생년도)가 결정 된 근거를 찾기는 어 려움

□ Z세대의 정의

- 선행 연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유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으며,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움.
-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로써 밀레니엄세대 또는 Y세대의 뒤를 이어가는 인구 집단으로 정의했음.
-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되어진 문화에서 자랐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에 매우 친숙하며, 이미지나 동영상의 콘텐츠를 매우 선호함.
-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매우 익숙하며 현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임.
- 소비와 관련하여 온라인 구매의 비중이 크며,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
- 온라인 매체와 관련하여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
- X세대의 부모를 뒀.

□ M세대의 정의

- 선행 연구에서는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모바일세대 또는 밀레니엄세대나 Y세대로 불리움.
- M세대는 모바일(Mobile), 마이셀프(Myself), 무브먼트(Movement)의 첫 글자를 나타냄.
- X세대가 휴대전화를 단순한 통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들은 그 외의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집착을 보이는 성향도 있음.

- X세대에 비하여 반항심이 적고, 실질적이며, 팀이 개인의 우선권을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권리에 앞서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중심적인 성향을 중시한다고 정의함.
-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소셜 네트워킹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스스로를 매우 중시하며, 책보다는 인터넷, 편지보다는 이메일, TV보다는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임.
-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미디어를 즐기기를 원하고, 혼자 사는 인구가 많지만 반려동물을 친구로 가지고 SNS친구를 생성하여 외롭게 느끼지는 않음.
- 인터넷을 통한 물리적 환경을 연결하여 생활하는데, 항상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블로그나 SNS를 통한 광고에 더욱 민감함.
- B세대의 부모를 둠.

□ X세대의 정의

- 선행 연구에서는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베이비붐세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임
- X세대라는 말은 캐나다 작가가 1991년 뉴욕에서 출간한 팝아트 소설의 『X세대(Generation-X: Tales for an Accelerated Culture)』에서 처음 사용하였음.
- 이전 세대들과 다른 특성은 있지만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는 뜻으로 X를 사용함.
- 국내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신세대의 취향이 부각되면서 기존 세대와는 독특한 구분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함.
- 물질적이나 경제적인 풍요를 물려받은 세대로 기존의 가치관이나 관습

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의 관심분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자랐으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경향이 있음.
- X세대는 개인적이며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진지하거나 심각한 것을 거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나이와 성을 구분하지 않으며, 하이테크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로 정의함.

□ B세대의 정의

- 선행 연구에서는 1940년대 말에서 196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생한 세대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1950년에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를 일반적으로 정의함
- 각 국가별로 베이비부머의 세대는 그 연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주된 경험이 전쟁이 끝난 직 후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대하여 기술함.
- 1960년대 대가족에서 핵가족 사이의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깁세대” 라고도 함.
- 보수와 진보 또는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임.
- 범국가적 경제성장과 함께 경험한 세대이지만, 외환위기와 조기 은퇴라는 각종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대임.

□ 전체 세대의 정의

- 앞선 선행 연구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연구마다 약간은 다르게 그 기준과 정의를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준을 참고하여 세대별 기준을 정하고 그 구분을 하였음.
 - Pew research center(2020)의 자료를 보면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 M세대는 1981년에서 1997년 사이 출생, X세대는 1965년에서 1980년 출생, B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으로 정의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2019)와 통계청(2022) 등에서의 자료는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 M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사이 출생, X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출생, B세대는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으로 정의하였음
 - Pew research center(2020)의 자료에서는 외국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국내 세대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웠으며, 대한상공회의소(2019)와 통계청(2022)의 자료에서는 Z세대의 출생 기준이 몇 년 까지 인지가 나타나지 않아 전부 적용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하지만 많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기준의 평균값에 근사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대를 정의하고자 함.

<표 2-2> 세대별 출생연도 정의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
1995년~2004년	1980년~1994년	1965년~1979년	1950년~1964년

제2절 MZ세대의 특성

1. Z세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임.
 - PC보다 스마트폰 등의 세상이 더 익숙한 세대임.
- 아이덴티티(Identity)에서는 Z세대가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이들의 정체성을 말했다.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서는 Z세대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의 시각적 소통을 즐기는 속성을 다뤘으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함.
- 커머스(Commerce) 분야에서는 Z세대가 편리한 쇼핑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사용하며, 물건을 사기 전에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함.
- Z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대, 부모의 크리에이터, 스마트기가 대표 될 수 있음.
- MZ세대는 개인 중심과 현재 중심 노력, 소소한 성공, 행복, 과정, 다양한 삶의 방식,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 등 자신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이수지, 2020).
- MZ세대는 태어나고 자라는 시점에서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Prensky, M., 2001).
- MZ세대는 학창시절에 이미 컴퓨터를 생활화한 첫 세대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기술(Shatto, B., & Erwin, K., 2016).
- 스마트폰 이용률은 92.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 세대 중 90.8%의 비율이 동영상 콘텐츠를 주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

향이 있음(한결, 김희현, 2021).

- Z세대는 자신만의 기호가 뚜렷하면서도 타인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많이 고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넓은 인간관계를 선호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결핍을 동시에 느끼는 세대로 설명(최인수, 윤덕환, 채선애, 송으뜸, 2020).
- MZ세대는 SNS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소비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능숙하다고 설명된다. 이들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해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세대이고, 이러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전파시키는 특성이 있음(홍소희, 김민, 2021).
- MZ세대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검색결과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같은 감각에 끌리는 실감 세대라는 것이 특성으로 설명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 MZ세대는 과거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온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되는데, 이들은 남들이 볼 때 극히 평범해보일 수 있는 소소한 보통 정서와 다수 무의미해보이는 것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멋있게 밝히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라도 할 수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 MZ세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의 선택에 있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SNS 등을 중심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에 대한적응과 활용도가 높다고 기술됨(홍소희, 김민, 2021).
- MZ세대는 사회의 한축을구성하는 젊은 세대는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자신의삶과 정체성을 공개하는데, 이들은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동후, 2009).
- Z세대를 정리하면,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학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타

격을 받은 세대이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려서부터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세대에 비하여 영상이나 이미지의 영향을 더받고, 그들 자신의 개성을 위해 투자를 하며, 미래에 방점을 뒀.

□ 수요(소비)측면

-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인해 부모와 함께 보낸 유년기에 긴축 재정과 함께 성장 정체를 경험한 시기이기도 함.
 -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성장했고 이로 인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소비 성향을 보임.
 -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공유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숙박 공유 등 다양한 공유 경제 시스템을 활용.
- 환경,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
 -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미세먼지 심화를 일상 속에서 체감했기에 환경 이슈에 더욱 민감.
 - 기업의 상품을 살펴볼 때도 기업의 진정성, 진실성,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컨셔스(Conscious) 소비 성향을 강하게 나타냄.
 -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치, 사회적 성향을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돈쫄'을 내며 바람직한 기업을 부각.
 - Z세대 소비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나 중심의 소비'

□ 공급(창업과 구직) 측면

- 이전에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잡플래닛, 블라인드 같은 기존의 다녔던 사람들이 해당 직장에 대한 리뷰를 써주다보니 회사에 대한 정보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워라밸이 보장이 되지 않거나 직장에서 소통 등이 잘 되지 않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함.

- 청년창업의 창업 동기는 보다자유롭게 일하기 위해가 5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 EY에서 2016년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은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중 62%는 실제로 창업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42%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창업을 포기했다고 답했음 .
- 조나 스틸맨 Z세대 연구소 젠그루(GenGuru)의 공동창업자는 “지금은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시대”라며 “요즘엔 원한다면 누구나 혼자서도 24시간 안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음.

2. M세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임.
 - 본격적인 디지털화를 경험한 세대임.
- 부모를 권위적이며 가격중심으로 소비의 중요를 둠.
- 평소에는 매우 실속을 챙기지만, 때로는 과감한 소비성향을 보임.
- 어느 세대에 보다 더딘 경제적 성장에서 자랐으며, 코로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세대임.
- Z세대와는 달리 X세대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X세대와의 동질적인 면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
- 치열한 학창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입시 경쟁도 매우 치열했으며, 이 후 취업 또한 매우 경쟁적이었음.
-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환경에서 자랐으며, PC에 매우 친숙한 환경적 요인을 가졌음.

- MZ세대는 개인 중심과 현재 중심 노력, 소소한 성공, 행복, 과정, 다양한 삶의 방식, 나 자신이 만족하는 삶 등 자신이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이수지, 2020).
- MZ세대는 태어나고 자라는 시점에서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Prensky, M., 2001).
- MZ세대는 학창시절에 이미 컴퓨터를 생활화한 첫 세대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기술(Shatto, B., & Erwin, K., 2016).
- MZ세대는 SNS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소비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능숙하다고 설명된다. 이들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접해 디지털 활용에 능숙한 세대이고, 이러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전파시키는 특성이 있음(홍소희, 김민, 2021).
- MZ세대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검색결과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같은 감각에 끌리는 실감 세대라는 것이 특성으로 설명된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 개방되고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설명, 앞의 세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설명됨(임홍택, 2018).
- 이전의 세대보다 디지털기기 및 미디어를 좀 더 편안하게 접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 Nielsen, R. K., 2019).
- M세대는 X세대보다 제품의 구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소비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들 세대가 어떠한 제품을 구매하는가를 살피는 소비경향을 파악하면 미래 산업을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도 함(엄경희, 엄태경, 2020).

- MZ세대는 과거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보다 훨씬 더 온전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되는데, 이들은 남들이 볼 때 극히 평범해보일 수 있는 소소한 보통 정서와 다수 무의미해보이는 것들도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멋있게 밝히는,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할 수 있는 단단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대라도 할 수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 MZ세대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의 선택에 있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SNS 등을 중심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에 대한적응과 활용도가 높다고 기술됨(홍소희, 김민, 2021).
- MZ세대는 사회의 한축을구성하는 젊은 세대는 네트워크화된 공간에서 자신의삶과 정체성을 공개하는데, 이들은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동후, 2009).

□ 수요(소비)측면

- M세대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미적 감각 및 감수성 또한 이전 세대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의 핫플레이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경험적 소비 공간에서 분석된 결과 먼저, 심리적 요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특징으로 검색, 행동, 인증, 공유 순에서 검색과 행동에 대한 인식들이 분석 되었으며, 경험적 요소에서는 나만의 공간 욕구와 취향 및 가치에 대한 결과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들이 나타남.
 - 장소적 인식에 대해서는 인증, 공유에 포함되는 요소로 공간에 분위기를 신경 쓰며, 디저트의 비주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소비는 아끼지 않음.
- M세대는 구매경험, 가치소비, 경험공유를 중시함
 - 구매경험은 쿨해야 하며 쉽게 손에 가질 수 있어야 함.

- 소비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함
- 메모나 텍스트 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의 공유를 통한.

제3절 XB세대의 특성

1. X세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임.
 - 대학시험이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뀜.
 - IMF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느꼈음.
 - 전체적으로 정확한 특징을 묘사하기 어려운 모호한 세대.
 - 베이비 버스트 세대(baby-bust generation)라고도 불림.
- 1990년대 오렌지족이라는 청소년들의 과소비 향락문화가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고 독특한 대중문화에 대한 신세대의 취향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이 기존 세대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것이 인식되면서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1993년 아모레 화장품의 ‘트윈엑스’ 광고로 인해 X세대가 신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음(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 청소년기에 6·29 민주화 항쟁을 경험하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시기에 성장하였고, 산업화의 수혜를 받아 물질적·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한 집단이라는 공통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기존의 가치나 관습에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각종 다양한 대중매체 발달의 시대라는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과소비와 향락을 추구하며, 대중문화에 열광한다. 자기주장이 강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려고 하는 것도 X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

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 다양한 특징을 'PANTS'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각각 Personal, Amusement, Natural, Trans-border, Service를 말하는데, 우선 Personal은 개인적이고 자신만의 주장이나 세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Amusement는 심각하거나 진지한 것을 거부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원한다는 뜻이고, Natural은 자연에의 강한 욕구, Trans-border는 나이나 성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가치관, 그리고 Service는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서비스를 즐기는 세대를 의미 함(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 디지털 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점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진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로 설명(Prensky, M., 2001).
- 조직 중심과 미래 중심으로 설명, 1등, 금메달, 대기업, 결과, 안정적인 삶,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등 사회적 기준(키워드)가 중심으로 추상적인 반항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임홍택, 2018).

□ 수요(소비)측면

-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세례 속에서 풍요롭게 자라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소비문화에 있어서도 나를 위한 '가치소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대 때 소비와 향락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이들이 기성세대인 40대가 되면서 소비문화의 중심에 자리매김 하였으며, MZ세대가 SNS를 통해 소비트렌드를 개척해나간다고 한다면 X세대는 그 소비문화의 소비자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이들은 이어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나'의 생존과 '나'의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됨.
 - 기성세대의 절제와 절약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해왔지만 '본인의 능

력이 허용하는 한' 현재를 즐기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가족과 함께 외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나름대로 여유를 잃지 않는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2. B세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임
 - 6.25전쟁 이후에 급격한 출산율의 급증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임
 - 전쟁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한 세대임
- 청소년기에 유신시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급변하는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으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부모의 봉양과 자녀의 교육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임(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운주, 정종진, 최용용).
- '올드(YOLD)'는 젊음을 뜻하는 Young과 노년을 뜻하는 Old의 합성어로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서 2019 세계 10대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나이를 잊은 세대(Age agnostic)"라고 불리우며 기존의 노년층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는 그들의 부모인 고령화세대와 자녀인 에코세대 사이에서 끼어 있는 세대이다. 그로 인해 조화로운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양 세대에 끼어 있는 세대로 전락하였음.
- 디지털 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특정 시점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진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로 설명(Prensky, M., 2001).

○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을 따라잡는데 노력(Shatto, B., & Erwin, K., 2016).

□ 수요(소비)측면

○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일컫는 엔젤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소비지출 대비 18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를 산정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50대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17.2%로 나타난 결과(현대경제연구원, 2014).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등이 포함된 결과

○ 지출액 측면에서는 보건의료비, 지출비중 측면에서는 주류 및 담배와 오락 및 문화 비목을 제외한 모든 비목들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계와 노인가계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이지영, 김도성, 2015).

- 가계의 58.5%가 균형지출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주거비-교통비지출 중심형 순이었음.

- 주거비지출 중심형에 속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었음.

제3장 분석결과

<표 3-1> 세대_2그룹 빈도분석

세대	빈도(명)	유효 퍼센트(%)
MZ세대	524	40.3
기성세대	775	59.7
전체	1,299	100.0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 관점에서 본 연구대상자의 세대특성은 다음과 같다.
- 먼저 MZ세대의 경우 524명(40.3%), 기성세대의 경우 775명(59.7%)으로 나타났다.
- 집단 간 응답자의 비율 상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성세대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세대_4그룹 빈도분석

세대	빈도(명)	유효 퍼센트(%)
Z세대	108	8.3
M세대	416	32.0
X세대	476	36.6
베이비부머세대	299	23.0
전체	1,299	100.0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 관점에서 본 연구대상자의 세대특성은 다음과 같다.
- 먼저 Z세대는 108명(8.3%), M세대는 416명(32.0%), X세대는 476명(36.6%), 베이비부머세대는 299명(23.0%)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응답자는 X세대였으며, 이어서 M세대,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순이었다.

<표 3-3> 세대_2그룹 * 일반_고관여시민 교차표

세대		구분	일반_고관여시민		전체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세대_2 그룹	MZ세대	빈도(명)	442	82	524
		전체 중 비율 (%)	34.0	6.3	40.3
	기성세대	빈도(명)	558	217	775
		전체 중 비율 (%)	43.0	16.7	59.7
전체		빈도(명)	1000	299	1299
		전체 중 비율 (%)	77.0	23.0	100.0

$\chi^2 = 26.914$ $p < .001$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에 따른 시민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MZ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442명(34.0%), 고관여시민은 82명(6.3%)이었다.
- 기성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558명(43.0%), 고관여시민은 217명(16.7%)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기성세대 중 일반시민이었으며, 이어서 MZ세대인 일반시민, 기성세대인 고관여시민, MZ세대인 고관여시민 순이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2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시민특성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세대_4그룹 * 일반_고관여시민 교차표

세대		구분	일반_고관여시민		전체
			일반시민	고관여시민	
세대_4 그룹	Z세대	빈도(명)	96	12	108
		전체 중 비율 (%)	7.4	0.9	8.3
	M세대	빈도(명)	346	70	416
		전체 중 비율 (%)	26.6	5.4	32.0
	X세대	빈도(명)	333	143	476
		전체 중 비율 (%)	25.6	11.0	36.6
	베이비부머세대	빈도(명)	225	74	299
		전체 중 비율 (%)	17.3	5.7	23.0
	전체	빈도(명)	1000	299	1299
		전체 중 비율 (%)	77.0	23.0	100.0

$\chi^2 = 31.399$ p < .001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에 따른 시민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Z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96명(7.4%), 고관여시민은 12명(0.9%)이었다.
- M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346명(26.6%), 고관여시민은 70명(5.4%)이었다.
- X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333명(25.6%), 고관여시민은 143명(11.0%)이었다.
-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 일반시민은 225명(17.3%), 고관여시민은 74명(5.7%)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M세대인 일반시민이었으며, Z세대인 고관여시민의 수가 가장 적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4 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시민특성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세대_4그룹 * 기부경험 교차표

세대	구분	기부경험		전체
		있음	없음	
Z세대	빈도(명)	41	67	108
	전체 중 비율 (%)	3.2	5.2	8.3
M세대	빈도(명)	268	148	416
	전체 중 비율 (%)	20.6	11.4	0.3
X세대	빈도(명)	329	147	476
	전체 중 비율 (%)	25.3	11.3	0.4
베이비부머세대	빈도(명)	190	109	299
	전체 중 비율 (%)	14.6	8.4	0.2
전체	빈도(명)	828	471	1299
	전체 중 비율 (%)	63.7	36.3	100.0

$\chi^2 = 37.095$ $p < .001$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에 따른 기부경험 여부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Z세대 내 유경험자는 41명(3.2%), 무경험자는 67명(5.2%)이었다.
- M세대 내 기부 유경험자는 268명(20.6%), 무경험자는 148명(11.4%)이었다.
- X세대 내 기부 유경험자는 329명(25.3%), 무경험자는 147명(11.3%)이었다.
- 베이비부머세대 내 기부 유경험자는 190명(14.6%), 무경험자는 109명(8.4%)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X세대 내 기부 유경험자였으며, Z세대 내 기부 유경험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4 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기부경험 여부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세대_4그룹 * 자원봉사 경험 교차표

세대	구분	자원봉사 경험		전체
		있음	없음	
Z세대	빈도(명)	44	64	108
	전체 중 비율 (%)	3.4	4.9	8.3
M세대	빈도(명)	109	307	416
	전체 중 비율 (%)	8.4	23.6	0.3
X세대	빈도(명)	194	282	476
	전체 중 비율 (%)	14.9	21.7	0.4
베이비부머세대	빈도(명)	116	183	299
	전체 중 비율 (%)	8.9	14.1	0.2
전체	빈도(명)	463	836	1299
	전체 중 비율 (%)	35.6	64.4	100.0

$\chi^2 = 24.110$ p < .001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에 따른 자원봉사 경험 여부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Z세대 내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44명(3.4%), 무경험자는 64명(4.9%)이었다.
- M세대 내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109명(8.4%), 무경험자는 307명(23.6%)이었다.
- X세대 내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194명(14.9%), 무경험자는 282명

(21.7%)이었다.

- 베이비부머세대 내 자원봉사 유경험자는 116명(8.9%), 무경험자는 183명(14.1%)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M세대 내 자원봉사 무경험자였으며, Z세대 내 자원봉사 유경험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4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자원봉사 경험 여부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세대_2그룹 * 기부경험 교차표

세대	구분	기부경험		전체
		있음	없음	
MZ세대	빈도(명)	309	215	524
	전체 중 비율(%)	23.8	16.6	40.3
기성세대	빈도(명)	519	256	775
	전체 중 비율(%)	40.0	19.7	0.3
전체	빈도(명)	828	471	1299
	전체 중 비율(%)	63.7	36.3	100.0

$\chi^2 = 8.653$ $p < .01$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에 따른 기부경험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MZ세대 내 기부경험 유경험자는 309명(23.8%), 무경험자는 215명(16.6%)이었다.
- 기성세대 내 기부경험 유경험자는 519명(40.0%), 무경험자는 256명(19.7%)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기성세대 중 기부경험 유경험자였으며,

이어서 MZ세대 중 기부경험 유경험자, 기성세대 중 기부경험 무경험자, MZ세대 중 기부경험 무경험자 순이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2 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기부경험 유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세대_2그룹 * 자원봉사 경험 교차표

세대	구분	자원봉사 경험		전체
		있음	없음	
MZ세대	빈도(명)	153	371	524
	전체 중 비율 (%)	11.8	28.6	40.3
기성세대	빈도(명)	310	465	775
	전체 중 비율 (%)	23.9	35.8	0.3
전체	빈도(명)	463	836	1299
	전체 중 비율 (%)	35.6	64.4	100.0

$\chi^2 = 15.901$ $p < .001$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에 따른 자원봉사 경험 유무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MZ세대 내 자원봉사 경험 유경험자는 153명(11.8%), 무경험자는 371명(28.6%)이었다.
- 기성세대 내 자원봉사 경험 유경험자는 310명(23.9%), 무경험자는 465명(35.8%)이었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기성세대 중 봉사경험 무경험자였으며, 이어서 MZ세대 중 봉사경험 유경험자, 기성세대 중 봉사경험 무경험자, MZ세대 중 봉사경험 무경험자 순이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2

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자원봉사 경험 유무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세대_2그룹 *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

세대	구분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0회 이상	전혀 없음	전체
MZ세대	빈도(명)	133	57	22	25	287	524
	전체 중 비율 (%)	10.2	4.4	1.7	1.9	22.1	40.3
기 성 세 대	빈도(명)	189	92	30	58	406	775
	전체 중 비율 (%)	14.5	7.1	2.3	4.5	31.3	59.7
전체	빈도(명)	322	149	52	83	693	1299
	전체 중 비율 (%)	24.8	11.5	4.0	6.4	53.3	100.0

$\chi^2 = 4.411$ $p < .353$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MZ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133명(10.2%), 3~5회인 경우는 57명(4.4%), 6~10회인 경우는 22명(1.7%), 10회 이상인 경우는 25명(1.9%), 전혀 없는 경우는 287명(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성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189명(14.5%), 3~5회인 경우는 92명(7.1%), 6~10회인 경우는 30명(2.3%), 10회 이상인 경우는 58명(4.5%), 전혀 없는 경우는 406명(31.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기성세대 중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무경험자였으며, MZ세대 중 6~10회 참여한 경우가 가장 적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2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세대_4그룹 *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

세대	구분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0회 이상	전혀 없음	전체
Z세대	빈도(명)	25	5	2	3	73	108
	전체 중 비율 (%)	1.9	0.4	0.2	0.2	5.6	8.3
M세대	빈도(명)	108	52	20	22	214	416
	전체 중 비율 (%)	8.3	4.0	1.5	1.7	16.5	32.0
X세대	빈도(명)	106	61	22	43	244	476
	전체 중 비율 (%)	8.2	4.7	1.7	3.3	18.8	36.6
베이비부머 세대	빈도(명)	83	31	8	15	162	299
	전체 중 비율 (%)	6.4	2.4	0.6	1.2	12.5	23.0
전체	빈도(명)	322	149	52	83	693	1299
	전체 중 비율 (%)	24.8	11.5	4.0	6.4	53.3	100.0

$\chi^2 = 26.085$ $p < .05$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Z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25명(1.9%), 3~5회인 경우는 5명(0.4%), 6~10회인 경우는 2명(0.2%), 10회 이상인 경우는 3명(0.2%), 전혀 없는 경우는 73명(5.6%)인 것으로 나타났다.
- M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108명(8.3%), 3~5회인 경우는 52명(4.0%), 6~10회인 경우는 20명(1.5%), 10회 이상인 경우는 22명(1.7%), 전혀 없는 경우는 214명(16.5%)인 것으로 나타났다.
- X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106명(8.2%), 3~5회인 경우는 61명(4.7%), 6~10회인 경우는 22명(1.7%), 10회 이상인 경우는 43명(3.3%), 전혀 없는 경우는 244명(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부머세대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한 횟수가 1~2회인 경우는 83명(6.4%), 3~5회인 경우는 31명(2.4%), 6~10회인 경우는 8명(0.6%), 10회 이상인 경우는 15명(1.2%), 전혀 없는 경우는 162명(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집단은 X세대 내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무경험자였으며, Z세대 내 사회적경제 활동 6~10회 참여자의 수가 가장 적었다.
- 이러한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4 집단 세대구분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수준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MZ세대와 기성세대 2집단 비교 (n=1299)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	MZ세대	524	2.817	0.937	-5.184	0.000
	기성세대	775	3.090	0.924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인식	MZ세대	524	2.124	0.676	-6.983	0.000
	기성세대	775	2.393	0.690		
사회적경제에대한평가	MZ세대	524	3.263	0.772	-3.095	0.002
	기성세대	775	3.407	0.855		
공동체의식	MZ세대	524	2.889	0.706	-6.651	0.000
	기성세대	775	3.156	0.715		
시민임파워먼트	MZ세대	524	3.135	0.583	0.159	0.874
	기성세대	775	3.129	0.638		
시민임파워먼트_개인내적요소	MZ세대	524	3.220	0.743	-0.488	0.625
	기성세대	775	3.241	0.732		
시민임파워먼트_대인관계요소	MZ세대	524	3.160	0.667	1.618	0.106
	기성세대	775	3.096	0.719		
시민임파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MZ세대	524	3.029	0.662	-0.343	0.732
	기성세대	775	3.043	0.751		
SE_참여활동적극성_역척도	MZ세대	275	3.273	0.994	3.640	0.000
	기성세대	442	2.991	1.030		
사회문제관심_역척도	MZ세대	524	2.435	0.988	4.544	0.000
	기성세대	775	2.203	0.844		
사회문제노력_역척도	MZ세대	524	3.321	0.972	3.845	0.000
	기성세대	775	3.110	0.967		

주: Levene의 등분산 검정 실시 후 평균 차 검정

- MZ세대, 기성세대(BX세대)로 구분한 2집단에 따른 각 인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t-test를 진행하였다.
- 이때 인식수준에 대한 항목은 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②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③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④ 시민임파워먼트, ⑤ 시민임파워먼트 내 개인 내적요소, ⑥ 시민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

요소, ⑦ 시민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 요소, ⑧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⑨ 사회문제 관심 수준, ⑩ 사회문제 노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 2집단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인식수준 평균은 MZ세대가 2.817점(SD=0.937), 기성세대가 3.090점(SD=0.924)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5.184(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기업 인식수준 평균은 MZ세대가 2.124점(SD=0.676), 기성세대가 2.393점(SD=0.690)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6.983(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3.263점(SD=0.772), 기성세대가 3.407점(SD=0.855)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3.095(p<.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공동체 의식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2.889점(SD=0.706), 기성세대가 3.156점(SD=0.715)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6.651(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3.135점($SD=0.583$), 기성세대가 3.129점($SD=0.638$)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0.159(p>.05)$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개인 내적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개인 내적 요소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3.220점($SD=0.743$), 기성세대가 3.241점($SD=0.732$)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0.488(p>.05)$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대인관계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대인관계 요소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3.160점($SD=0.667$), 기성세대가 3.096점($SD=0.719$)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1.618(p>.05)$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정치사회적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정치사회적 요소 수준 평균은 MZ세대가 3.029점 (SD=0.662), 기성세대가 3.043점(SD=0.751)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0.343(p>.05)$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의 평균은 MZ세대가 3.273점 (SD=0.994), 기성세대가 2.991점(SD=1.030)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3.640(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사회문제 관심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관심 수준의 평균은 MZ세대가 2.435점(SD=0.988), 기성세대가 2.203점(SD=0.844)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4.544(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집단별 사회문제 노력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노력 수준의 평균은 MZ세대가 3.321점(SD=0.972), 기성세대가 3.110점(SD=0.967)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t=3.845(p<.001)$ 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 4집단 비교 (n=1299)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	Z세대	108	2.608	0.963	11.331	0.000
	M세대	416	2.871	0.923		
	X세대	476	3.094	0.951		
	베이비부머세대	299	3.084	0.882		
	전체	1299	2.980	0.939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인식	Z세대	108	1.889	0.623	22.242	0.000
	M세대	416	2.185	0.676		
	X세대	476	2.417	0.706		
	베이비부머세대	299	2.355	0.664		
	전체	1299	2.285	0.697		
사회적경제에대한평가	Z세대	108	3.219	0.736	4.612	0.003
	M세대	416	3.275	0.782		
	X세대	476	3.453	0.869		
	베이비부머세대	299	3.334	0.827		
	전체	1299	3.349	0.825		
공동체의식	Z세대	108	2.860	0.650	14.727	0.000
	M세대	416	2.896	0.720		
	X세대	476	3.153	0.733		
	베이비부머세대	299	3.160	0.687		
	전체	1299	3.048	0.723		
시민임과워먼트	Z세대	108	3.130	0.508	0.048	0.986
	M세대	416	3.136	0.602		
	X세대	476	3.135	0.670		
	베이비부머세대	299	3.120	0.585		
	전체	1299	3.131	0.616		
시민임과워먼트_개인내적요소	Z세대	108	3.224	0.690	0.226	0.879
	M세대	416	3.219	0.757		
	X세대	476	3.227	0.755		
	베이비부머세대	299	3.263	0.695		
	전체	1299	3.232	0.737		
시민임과워먼트_대인관계요소	Z세대	108	3.163	0.630	1.966	0.117
	M세대	416	3.160	0.677		
	X세대	476	3.132	0.741		
	베이비부머세대	299	3.039	0.679		
	전체	1299	3.122	0.699		

종속변수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시민임과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Z세대	108	3.011	0.624	0.071	0.975
	M세대	416	3.034	0.672		
	X세대	476	3.045	0.786		
	베이비부머세대	299	3.040	0.692		
	전체	1299	3.038	0.716		
SE_참여활동적극성_역척도	Z세대	45	3.178	1.007	4.497	0.004
	M세대	230	3.291	0.992		
	X세대	271	2.996	1.094		
	베이비부머세대	171	2.982	0.923		
	전체	717	3.099	1.025		
사회문제관심_역척도	Z세대	108	2.602	1.050	9.050	0.000
	M세대	416	2.392	0.968		
	X세대	476	2.168	0.874		
	베이비부머세대	299	2.258	0.793		
	전체	1299	2.296	0.912		
사회문제노력_역척도	Z세대	108	3.472	1.000	6.156	0.000
	M세대	416	3.281	0.962		
	X세대	476	3.095	0.985		
	베이비부머세대	299	3.134	0.939		
	전체	1299	3.195	0.974		

주: p < .05 인 경우 음영표시

<표 3-13> Z세대, M세대, X세대, 베이비부머세대 4집단 비교 사후분석: Games-Howell (n=1299)

종속변수	집단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	Z세대	M세대	-0.262	0.103	0.057
		X세대	-0.485	0.102	0.000
		베이비부머세대	-0.476	0.106	0.000
	M세대	Z세대	0.262	0.103	0.057
		X세대	-0.223	0.063	0.002
		베이비부머세대	-0.213	0.068	0.010
	X세대	Z세대	0.485	0.102	0.000
		M세대	0.223	0.063	0.002
		베이비부머세대	0.010	0.067	0.999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476	0.106	0.000
		M세대	0.213	0.068	0.010
		X세대	-0.010	0.067	0.999

종속변수	집단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Z세대	M세대	-0.296	0.069	0.000
		X세대	-0.528	0.068	0.000
		베이비부머세대	-0.466	0.071	0.000
	M세대	Z세대	0.296	0.069	0.000
		X세대	-0.232	0.046	0.000
		베이비부머세대	-0.170	0.051	0.005
	X세대	Z세대	0.528	0.068	0.000
		M세대	0.232	0.046	0.000
		베이비부머세대	0.062	0.050	0.609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466	0.071	0.000
		M세대	0.170	0.051	0.005
		X세대	-0.062	0.050	0.609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Z세대	M세대	-0.056	0.081	0.899
		X세대	-0.234	0.081	0.023
		베이비부머세대	-0.115	0.085	0.533
	M세대	Z세대	0.056	0.081	0.899
		X세대	-0.178	0.055	0.007
		베이비부머세대	-0.059	0.061	0.767
	X세대	Z세대	0.234	0.081	0.023
		M세대	0.178	0.055	0.007
		베이비부머세대	0.119	0.062	0.225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115	0.085	0.533
		M세대	0.059	0.061	0.767
		X세대	-0.119	0.062	0.225
공동체의식	Z세대	M세대	-0.036	0.072	0.958
		X세대	-0.293	0.071	0.000
		베이비부머세대	-0.300	0.074	0.000
	M세대	Z세대	0.036	0.072	0.958
		X세대	-0.257	0.049	0.000
		베이비부머세대	-0.264	0.053	0.000
	X세대	Z세대	0.293	0.071	0.000
		M세대	0.257	0.049	0.000
		베이비부머세대	-0.007	0.052	0.999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300	0.074	0.000	
	M세대	0.264	0.053	0.000	
	X세대	0.007	0.052	0.999	

종속변수	집단		평균차이(I-J)	표준오차	유의확률
SE_참여활동적극성_역척도	Z세대	M세대	-0.114	0.164	0.899
		X세대	0.181	0.164	0.687
		베이비부머세대	0.195	0.166	0.643
	M세대	Z세대	0.114	0.164	0.899
		X세대	0.295	0.093	0.009
		베이비부머세대	0.309	0.096	0.008
	X세대	Z세대	-0.181	0.164	0.687
		M세대	-0.295	0.093	0.009
		베이비부머세대	0.014	0.097	0.999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195	0.166	0.643
		M세대	-0.309	0.096	0.008
		X세대	-0.014	0.097	0.999
사회문제관심_역척도	Z세대	M세대	0.210	0.112	0.240
		X세대	0.434	0.109	0.001
		베이비부머세대	0.344	0.111	0.012
	M세대	Z세대	-0.210	0.112	0.240
		X세대	0.224	0.062	0.002
		베이비부머세대	0.134	0.066	0.176
	X세대	Z세대	-0.434	0.109	0.001
		M세대	-0.224	0.062	0.002
		베이비부머세대	-0.089	0.061	0.456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344	0.111	0.012
		M세대	-0.134	0.066	0.176
		X세대	0.089	0.061	0.456
사회문제노력_역척도	Z세대	M세대	0.191	0.107	0.285
		X세대	0.378	0.106	0.003
		베이비부머세대	0.338	0.110	0.013
	M세대	Z세대	-0.191	0.107	0.285
		X세대	0.187	0.065	0.022
		베이비부머세대	0.147	0.072	0.171
	X세대	Z세대	-0.378	0.106	0.003
		M세대	-0.187	0.065	0.022
		베이비부머세대	-0.039	0.071	0.945
	베이비부머세대	Z세대	-0.338	0.110	0.013
		M세대	-0.147	0.072	0.171
		X세대	0.039	0.071	0.945

주: p < .05 인 경우 음영표시

○ Z세대, M세대, X세대, B세대(베이비부머세대)로 구분한 4집단에 따른 각 인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집단별 표본 수가 다르고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후분석 방법인 Games-Howell 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때 인식수준에 대한 항목은 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②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③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④ 시민임과워먼트, ⑤ 시민임과워먼트 내 개인 내적요소, ⑥ 시민임과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 ⑦ 시민임과워먼트 내 정치사회적 요소, ⑧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⑨ 사회문제 관심 수준, ⑩ 사회문제 노력 수준으로 구분된다.

○ 4집단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인식수준 평균은 Z세대가 2.608점(SD=0.963), M세대가 2.871점(SD=0.923), X세대가 3.094점(SD=0.951), 베이비부머세대가 3.084점(SD=0.882)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1.331(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기업 인식수준 평균은 Z세대가 1.889점(SD=0.623), M세대가 2.185점(SD=0.676), X세대가 2.417점(SD=0.706), 베이비부머세대가 2.355점(SD=0.664)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22.242(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평균은 Z세대가 3.219점($SD=0.736$), M세대가 3.275점($SD=0.782$), X세대가 3.453점($SD=0.869$), 베이비부머세대가 3.334점($SD=0.827$)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4.612(p<.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X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공동체 의식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은 Z세대가 2.860점($SD=0.650$), M세대가 2.896점($SD=0.720$), X세대가 3.153점($SD=0.733$), 베이비부머세대가 3.160점($SD=0.687$)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4.727(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에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수준 평평균은 Z세대가 3.130점($SD=0.508$), M세대

가 3.136점(SD=0.602), X세대가 3.135점(SD=0.670), 베이비부머 세대가 3.120점(SD=0.585)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0.048(p>.05)$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개인 내적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개인 내적 요소 수준 평균은 Z세대가 3.224점(SD=0.690), M세대가 3.219점(SD=0.757), X세대가 3.227점(SD=0.755), 베이비부머세대가 3.263점(SD=0.695)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0.226(p>.05)$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대인관계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대인관계 요소 수준 평균은 Z세대가 3.163점(SD=0.630), M세대가 3.160점(SD=0.677), X세대가 3.132점(SD=0.741), 베이비부머세대가 3.039점(SD=0.679)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966(p>.05)$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시민 임파워먼트 중 정치사회적 요소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민 임파워먼트 중 정치사회적 요소 수준 평균은 Z세대가 3.011점(SD=0.624), M세대가 3.034점(SD=0.672), X세대가 3.045점

(SD=0.786), 베이비부머세대가 3.040점(SD=0.692)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0.071(p>.05)$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3.178점(SD=1.007), M세대가 3.291점(SD=0.992), X세대가 2.996점(SD=1.094), 베이비부머세대가 2.982점(SD=0.923)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4.497(p<.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M세대는 다른 세대에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사회문제 관심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관심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2.602점(SD=1.050), M세대가 2.392점(SD=0.968), X세대가 2.168점(SD=0.874), 베이비부머세대가 2.258점(SD=0.793)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9.050(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M세대는 다른 세대에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집단별 사회문제 노력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노력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3.472점(SD=1.000), M세대가

3.281점(SD=0.962), X세대가 3.095점(SD=0.985), 베이비부머세대가 3.134점(SD=0.939)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6.156(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Z세대는 다른 세대에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정의

변수	분류	변수명	코딩	변수 내용	비고	
독립변수	2집단	기성세대(준거)	1	1955년~1979년생: 43~67	준거집단 기준으로 역코딩함	연속 연형
		MZ세대	2	1980년~2004년생: 18~42		
	4집단	베이비부머세대(준거)	1	1950년~1964년생: 58~67		
		X세대	2	1965년~1979년생: 43~57		
		M세대	3	1980년~1994년생: 28~42		
Z세대	4	1995년~2004년생: 18~27				
통제변수	사업참여경험(101)	1	v133 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	참여횟수로 재코딩 1 = 미참여 2 = 1회 참여 3 = 2회 참여 4 = 3회 참여 5 = 4회 참여	범주 속 연형	
		2	v134 우리동네나눔반장			
		3	v135 주민기술학교			
		4	v136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자원조사			
		5	v137 참여한 적 없음			
	최종학력(103)		v139	연속 연형		
	직업(108)		v148 / 직업의 경우 서열화할 수 없어 해석하지 않음	범주 연형		
월평균가구소득(109)		v150	연속 연형			
종속변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1-5			연속 연형	
		1-5				
		1-5				
		1-5				
	시민 임파 워먼 트	개인내적요소				연속 연형
		대인관계요소				
		정치사회적요소				
	사회적경제참여활동적극성		v39_역척도	연속 연형		
사회문제관심		v78_역척도				
사회문제노력		v79_역척도				

<표 3-14>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상수)	2.109	0.143		14.715***	
	2집단	-0.179	0.048	-0.094	-3.755** *	1.034
	2.0사업참여경험	0.604	0.035	0.432	17.393***	1.023
	최종학력	0.069	0.025	0.070	2.755**	1.080
	직업	-0.013	0.009	-0.037	-1.499	1.024
	가구소득	0.026	0.009	0.074	2.866**	1.094
	R^2	0.222		F		73.800***
	$adjR^2$	0.219		$D-W$		1.915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3.800$,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2.2%(수정된 R 제곱은 21.9%)로 나타났다($R^2=.222$, $adjR^2=.219$).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5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094$, $p < .001$)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MZ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432$, $p < .001$), 최종학력($\beta=0.070$, $p < .01$), 가구소득($\beta=0.074$, $p < .01$)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에 대

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상수)	1.581	0.105		15.096** *	
	2집단	-0.206	0.035	-0.145	-5.922** *	1.034
	2.0사업참여경험	0.435	0.025	0.418	17.130** *	1.023
	최종학력	0.093	0.018	0.128	5.097***	1.080
	직업	-0.009	0.006	-0.034	-1.379	1.024
	가구소득	0.022	0.007	0.085	3.378**	1.094
	R^2	0.246		F		84.449***
	$adjR^2$	0.243		$D-W$		1.872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4.449$,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4.6%(수정된 R 제곱은 24.3%)로 나타났다 ($R^2 = .246$, $adjR^2 = .243$).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 = -0.145$, $p < .001$)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MZ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418$, $p<.001$), 최종학력($\beta=0.128$, $p<.001$), 가구소득($\beta=0.085$, $p<.001$)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	(상수)	2.663	0.133		20.036** *	
	2집단	-0.085	0.044	-0.050	-1.916	1.034
	2.0사업참여경험	0.433	0.032	0.352	13.431** *	1.023
	최종학력	0.029	0.023	0.034	1.259	1.080
	직업	0.011	0.008	0.037	1.406	1.024
	가구소득	0.004	0.008	0.012	0.432	1.094
	R^2	0.134		<i>F</i>		40.013***
	$adjR^2$	0.131		<i>D-W</i>		1.874

* $p<.05$, ** $p<.01$, *** $p<.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0.01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4%(수정된 R 제곱은 13.1%)로 나타났다 ($R^2=.134$, $adjR^2=.131$).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4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인지 MZ세대인지 여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52$, $p<.001$)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 가구소득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2집단 회귀분석 (공동체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공동체 의식	(상수)	2.626	0.114		22.996** *	
	2집단	-0.202	0.038	-0.137	-5.311** *	1.034
	2.0사업참여경험	0.394	0.028	0.365	14.244** *	1.023
	최종학력	0.003	0.020	0.003	0.127	1.080
	직업	0.009	0.007	0.032	1.231	1.024
	가구소득	0.018	0.007	0.067	2.516*	1.094
	R^2	0.168		F		52.316***
	$adj R^2$	0.165		D-W		1.887

* $p<.05$, ** $p<.01$, *** $p<.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2.316$,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8%(수정된 R 제곱은 16.5%)로 나타났다 ($R^2=.168$, $adjR^2=.165$).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7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137$, $p<.001$)은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으며, MZ세대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65$, $p<.001$), 가구소득($\beta=0.067$, $p<.05$)이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시민 임파워 먼트	(상수)	2.130	0.098		21.745***	
	2집단	0.062	0.033	0.049	1.900	1.034
	2.0사업참여경험	0.308	0.024	0.335	12.961***	1.023
	최종학력	0.050	0.017	0.078	2.933**	1.080
	직업	0.012	0.006	0.051	1.992*	1.024
	가구소득	0.042	0.006	0.185	6.933***	1.094
	R^2	0.157		F		48.173***
	$adjR^2$	0.154		$D-W$		1.887

* $p<.05$, ** $p<.01$, *** $p<.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8.17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7%(수정된 R 제곱은 15.4%)로 나타났다 ($R^2=.157$, $adjR^2=.154$).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7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인지 MZ세대인지 여부는 시민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35$, $p<.001$), 최종학력($\beta=0.078$, $p<.01$), 직업($\beta=0.051$, $p<.05$), 가구소득($\beta=0.185$, $p<.001$)이 시민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개인내적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시민 임파워 먼트 _개인 내적요소	(상수)	2.627	0.124		21.215** *	
	2집단	0.030	0.041	0.020	0.724	1.034
	2.0사업참여경험	0.192	0.030	0.174	6.385***	1.023
	최종학력	-0.001	0.022	-0.002	-0.058	1.080
	직업	0.008	0.008	0.030	1.103	1.024
	가구소득	0.048	0.008	0.174	6.167***	1.094
	R^2	0.057		<i>F</i>		15.721***
	$adjR^2$	0.054		<i>D-W</i>		1.976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5.72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7%(수정된 R 제곱은 5.4%)로 나타났다($R^2 = .057$, $adjR^2 = .054$).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6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인지 MZ세대인지 여부는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174$, $p < .001$). 가구소득($\beta=0.174$, $p < .0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

적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대인관계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시민 임파워 먼트 _대인 관계요소	(상수)	1.982	0.112		17.617***		
	2집단	0.121	0.037	0.085	3.233**	1.034	
	2.0사업참여경험	0.304	0.027	0.292	11.169***	1.023	
	최종학력	0.064	0.020	0.088	3.261**	1.080	
	직업	0.009	0.007	0.035	1.332	1.024	
	가구소득	0.048	0.007	0.185	6.848***	1.094	
	R^2	0.135		F		40.412***	
	$adjR^2$	0.132		$D-W$		1.902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0.412$,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5%(수정된 R 제곱은 13.2%)로 나타났다($R^2 = .135$, $adjR^2 = .132$).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085$, $p < .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낮으며, MZ세대일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292$, $p<.001$). 최종학력($\beta=0.088$, $p<.01$), 가구소득($\beta=0.185$, $p<.0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2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시민 임파워 먼트 _정치 사회적요 소	(상수)	1.749	0.111		15.785** *	
	2집단	0.048	0.037	0.033	1.304	1.034
	2.0사업참여경험	0.426	0.027	0.399	15.876** *	1.023
	최종학력	0.090	0.019	0.121	4.692***	1.080
	직업	0.018	0.007	0.066	2.607**	1.024
	가구소득	0.033	0.007	0.123	4.729***	1.094
	R^2	0.200		F		64.773***
	$adjR^2$	0.197		D-W		1.885

* $p<.05$, ** $p<.01$, *** $p<.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4.77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0.0%(수정된 R 제곱은 19.7%)로 나타났다($R^2=.200$, $adjR^2=.197$).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5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

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033$)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인지 MZ세대인지 여부는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99$, $p<.001$), 최종학력($\beta=0.121$, $p<.001$), 직업($\beta=0.066$, $p<.01$), 가구소득($\beta=0.123$, $p<.0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2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참여활동적극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사회 적경제참 여활동적 극성	(상수)	3.704	0.229		16.204** *	
	2집단	0.152	0.070	0.072	2.181*	1.026
	2.0사업참여경험	-0.582	0.043	-0.447	-13.442* **	1.029
	최종학력	0.017	0.038	0.016	0.459	1.065
	직업	-0.019	0.013	-0.049	-1.465	1.031
	가구소득	0.038	0.013	0.099	2.883**	1.094
	R^2	0.237		F		44.180***
	$adjR^2$	0.232		$D-W$		1.799

* $p<.05$, ** $p<.01$, *** $p<.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4.180$,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3.7%(수정된 R 제곱은 23.2%)로 나타났다

($R^2=.237$, $adjR^2=.232$).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072$, $p<.05$)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낮으며, MZ세대일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447$, $p<.001$)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가구소득($\beta=0.099$, $p<.01$)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2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관심)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문 제관심	(상수)	2.965	0.152		19.450***	
	2집단	0.204	0.051	0.110	4.027***	1.034
	2.0사업참여경험	-0.230	0.037	-0.169	-6.227** *	1.023
	최종학력	-0.098	0.027	-0.103	-3.689** *	1.080
	직업	-0.019	0.009	-0.056	-2.065*	1.024
	가구소득	-0.026	0.010	-0.076	-2.712**	1.094
	R^2	0.067		F		18.650***
	$adj R^2$	0.064		$D-W$		2.050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문제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650$,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7%(수정된 R 제곱은 6.4%)로 나타났다($R^2 = .067$, $adj R^2 = .064$).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0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110$, $p < .001$)은 사회문제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낮으며, MZ세대일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169$, $p < .001$), 최종학력($\beta = -0.103$, $p < .001$), 직업($\beta = -0.056$, $p < .05$), 가구소득($\beta = -0.076$, $p < .01$)은 사회문제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4> 2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노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문 제노력	(상수)	4.184	0.153		27.381** *	
	2집단	0.135	0.051	0.068	2.651**	1.034
	2.0사업참여경험	-0.575	0.037	-0.396	-15.515* **	1.023
	최종학력	-0.083	0.027	-0.082	-3.113**	1.080
	직업	-0.005	0.009	-0.012	-0.487	1.024
	가구소득	-0.009	0.010	-0.025	-0.960	1.094
	R^2	0.179		<i>F</i>		56.305***
	$adjR^2$	0.176		<i>D-W</i>		1.894

* $p < .05$, ** $p < .01$, *** $p < .001$

○ 기성세대와 MZ세대로 구분한 두집단 유형이 사회문제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305$,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7.9%(수정된 R 제곱은 17.6%)로 나타났다($R^2=.179$, $adjR^2=.176$).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4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2집단 구분($\beta=0.068$, $p < .01$)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성세대일수록 사회문제 노력 정도가 낮으며, MZ세대일수록 사회문제 노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96$, $p < .001$), 최종학력(β

=-0.082, $p < .01$)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노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 가구소득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상수)	2.080	0.137		15.204***	
	4집단	-0.111	0.026	-0.107	-4.314** *	1.030
	2.0사업참여경험	0.605	0.035	0.432	17.499***	1.018
	최종학력	0.072	0.025	0.074	2.888**	1.085
	직업	-0.012	0.009	-0.033	-1.345	1.027
	가구소득	0.027	0.009	0.076	2.992**	1.085
	R^2	0.225		F		74.947***
	$adjR^2$	0.222		$D-W$		1.915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4.947$,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2.5%(수정된 R 제곱은 22.2%)로 나타났다($R^2=.225$, $adjR^2=.222$).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5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 = -0.107$, $p < .001$)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 = 0.432$, $p < .001$), 최종학력($\beta = 0.074$, $p < .01$), 가구소득($\beta = 0.076$, $p < .01$)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상수)	1.526	0.100		15.266** *	
	4집단	-0.118	0.019	-0.153	-6.234** *	1.030
	2.0사업참여경험	0.437	0.025	0.421	17.305** *	1.018
	최종학력	0.095	0.018	0.131	5.233***	1.085
	직업	-0.008	0.006	-0.029	-1.170	1.027
	가구소득	0.024	0.007	0.091	3.611***	1.085
	R^2	0.248		F		85.428***
	$adjR^2$	0.245		D-W		1.875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85.428$,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4.8%(수정된 R 제곱은 24.5%)로 나타났다

($R^2=.248$, $adjR^2=.245$).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75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153$, $p<.001$)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421$, $p<.001$), 최종학력($\beta=0.131$, $p<.001$), 가구소득($\beta=0.091$, $p<.001$)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평가	(상수)	2.602	0.127		20.456** *	
	4집단	-0.028	0.024	-0.031	-1.179	1.030
	2.0사업참여경험	0.436	0.032	0.355	13.570** *	1.018
	최종학력	0.028	0.023	0.032	1.192	1.085
	직업	0.012	0.008	0.037	1.421	1.027
	가구소득	0.005	0.008	0.015	0.564	1.085
	R^2	0.132		<i>F</i>		39.487***
	$adj R^2$	0.129		<i>D-W</i>		1.869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9.487$,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2%(수정된 R 제곱은 12.9%)로 나타났다($R^2=.132$, $adj R^2=.129$).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6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세대구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55$, $p < .001$)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 가구소득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4집단 회귀분석 (공동체의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공동체 의식	(상수)	2.550	0.109		23.331***		
	4집단	-0.103	0.021	-0.129	-5.016** *	1.030	
	2.0사업참여경험	0.398	0.028	0.369	14.414***	1.018	
	최종학력	0.004	0.020	0.005	0.178	1.085	
	직업	0.010	0.007	0.036	1.381	1.027	
	가구소득	0.020	0.007	0.073	2.756**	1.085	
	R^2	0.166		F		51.598***	
	$adj R^2$	0.163		$D-W$		1.884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1.598$,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6%(수정된 R 제곱은 16.3%)로 나타났다($R^2=.166$, $adj R^2=.163$).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4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129$, $p < .001$)은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으며, Z세대에 가

까울수록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69$, $p<.001$), 가구소득($\beta=0.073$, $p<.01$)이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공동체 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시민 임파워 먼트	(상수)	2.171	0.094		23.168** *	
	4집단	0.023	0.018	0.033	1.274	1.030
	2.0사업참여경험	0.305	0.024	0.332	12.879** *	1.018
	최종학력	0.051	0.017	0.079	2.973**	1.085
	직업	0.012	0.006	0.051	1.963*	1.027
	가구소득	0.042	0.006	0.182	6.832***	1.085
	R^2	0.156		<i>F</i>		47.703***
	$adj R^2$	0.152		<i>D-W</i>		1.888

* $p<.05$, ** $p<.01$, *** $p<.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7.70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5.6%(수정된 R 제곱은 15.2%)로 나타났다 ($R^2=.156$, $adj R^2=.152$).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8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세대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32$, $p<.001$), 최종학력($\beta=0.079$, $p<.01$), 직업($\beta=0.051$, $p<.05$), 가구소득($\beta=0.182$, $p<.001$)은 시민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0>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개인내적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시민 임파워 먼트 _개인 내적요소	(상수)	2.664	0.118		22.500** *	
	4집단	0.002	0.022	0.002	0.090	1.030
	2.0사업참여경험	0.189	0.030	0.172	6.320***	1.018
	최종학력	0.000	0.022	0.000	0.012	1.085
	직업	0.008	0.008	0.031	1.115	1.027
	가구소득	0.047	0.008	0.172	6.113***	1.085
	R^2	0.057		F		15.612***
	$adj R^2$	0.053		D-W		1.978

* $p<.05$, ** $p<.01$, *** $p<.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5.61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7%(수정된 R 제곱은 5.3%)로 나타났다(R^2

=.057, $_{adj}R^2=.053$).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8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세대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172$, $p<.001$), 가구소득($\beta=0.172$, $p<.001$)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대인관계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시민 임파워 먼트 _대인 관계요소	(상수)	2.023	0.108		18.813** *	
	4집단	0.064	0.020	0.083	3.152**	1.030
	2.0사업참여경험	0.302	0.027	0.290	11.113** *	1.018
	최종학력	0.063	0.020	0.086	3.210**	1.085
	직업	0.008	0.007	0.032	1.230	1.027
	가구소득	0.047	0.007	0.182	6.737***	1.085
	R^2	0.135		F		40.293***
	$adjR^2$	0.131		$D-W$		1.899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0.293$,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5%(수정된 R 제곱은 13.1%)로 나타났다($R^2=.135$, $adjR^2=.131$).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083$, $p < .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낮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290$, $p < .001$), 최종학력($\beta=0.086$, $p < .01$), 가구소득($\beta=0.182$, $p < .001$)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대인관계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개인내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4집단 회귀분석 (시민임파워먼트_정치사회적요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시민 임파워 먼트 _정치 사회적요 소	(상수)	1.794	0.106		16.928***		
	4집단	0.011	0.020	0.014	0.541	1.030	
	2.0사업참여경험	0.423	0.027	0.397	15.803***	1.018	
	최종학력	0.092	0.019	0.123	4.757***	1.085	
	직업	0.018	0.007	0.066	2.605**	1.027	
	가구소득	0.032	0.007	0.120	4.636***	1.085	
	R^2	0.199		F		64.421***	
	$adjR^2$	0.196		$D-W$		1.888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집단 유형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4.42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9.9%(수정된 R 제곱은 19.6%)로 나타났다 ($R^2=.199$, $adjR^2=.196$).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8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세대구분은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97$, $p<.001$), 최종학력($\beta=0.123$, $p<.001$), 직업($\beta=0.066$, $p<.01$), 가구소득($\beta=0.120$, $p<.001$)이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민 임파워먼트 내 정치사회적요소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3> 4집단 회귀분석 (사회적경제참여활동적극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사회적 경제참여 활동적극 성	(상수)	3.781	0.217		17.413***	
	4집단	0.076	0.039	0.065	1.959*	1.016
	2.0사업참여경험	-0.587	0.043	-0.451	-13.625**	1.018
	최종학력	0.015	0.038	0.013	0.392	1.070
	직업	-0.020	0.013	-0.052	-1.556	1.029
	가구소득	0.037	0.013	0.096	2.796**	1.090
	R^2	0.236		F		43.940***
	$adj R^2$	0.231		$D-W$		1.798

* $p<.05$, ** $p<.01$, *** $p<.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집단 유형이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3.940$,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3.6%(수정된 R 제곱은 23.1%)로 나타났다 ($R^2=.236$, $adj R^2=.231$).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8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065$, $p<.05$)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낮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451$, $p<.001$)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부(-)의 영향을, 가구소득($\beta=0.096$, $p<.01$)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이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최종학력, 직업은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4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관심)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문 제관심	(상수)	3.039	0.146		20.841** *	
	4집단	0.106	0.027	0.105	3.862***	1.030
	2.0사업참여경험	-0.234	0.037	-0.172	-6.348** *	1.018
	최종학력	-0.099	0.027	-0.104	-3.726** *	1.085
	직업	-0.020	0.009	-0.059	-2.182*	1.027
	가구소득	-0.028	0.010	-0.081	-2.894**	1.085
	R^2	0.066		F		18.374***
	$adj R^2$	0.063		$D-W$		2.052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 집단 유형이 사회문제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374$,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6%(수정된 R 제곱은 6.3%)로 나타났다($R^2 = .066$, $adj R^2 = .063$).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05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105$, $p < .001$)은 사회문제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낮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172$, $p < .001$), 최종학력($\beta=-0.104$, $p < .001$), 직업($\beta=-0.059$, $p < .05$), 가구소득($\beta=-0.081$, $p < .01$)은 사회문제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사회문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5> 4집단 회귀분석 (사회문제노력)

종속변수	독립변수	<i>B</i>	<i>S.E.</i>	β	<i>t</i>	<i>VIF</i>
사회문 제노력	(상수)	4.214	0.146		28.858** *	
	4집단	0.080	0.028	0.074	2.904**	1.030
	2.0사업참여경험	-0.576	0.037	-0.396	-15.599* **	1.018
	최종학력	-0.085	0.027	-0.084	-3.186**	1.085
	직업	-0.006	0.009	-0.015	-0.587	1.027
	가구소득	-0.010	0.010	-0.028	-1.052	1.085
	R^2	0.180		<i>F</i>		56.646***
	$adjR^2$	0.177		<i>D-W</i>		1.892

* $p < .05$, ** $p < .01$, *** $p < .001$

○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로 구분한 네집단 유형이 사회문제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646$,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8.0%(수정된 R 제곱은 17.7%)로 나타났다 ($R^2=.180$, $adjR^2=.177$).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9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며,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4집단 구분($\beta=0.074$, $p < .01$)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베이비부머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 노력이 낮으며, Z세대에 가까울수록 사회문제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반면 통제변수인 2.0사업참여경험($\beta=-0.396$, $p < .001$), 최종학력(β

=-0.084, $p<.01$)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2.0사업참여경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사회문제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그 밖에 직업, 가구소득은 사회문제 노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결론

- 본 연구의 데이터 set에서 2집단으로 분류해보면, MZ세대는 524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기성세대의 경우 775명으로 59.7%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더 큰 비중을 보인다.
- 4집단으로 분류해보면, Z세대는 108명(8.3%), M세대는 416명(32.0%), X세대는 476명(36.6%), 베이비부머세대는 299명(23.0%)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사회적경제 기업 인식수준 평균은 Z세대가 1.889점($SD=0.623$), M세대가 2.185점($SD=0.676$), X세대가 2.417점($SD=0.706$), 베이비부머세대가 2.355점($SD=0.664$)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22.242(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평균은 Z세대가 3.219점(SD=0.736), M세대가 3.275점(SD=0.782), X세대가 3.453점(SD=0.869), 베이비부머세대가 3.334점(SD=0.827)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4.612(p<.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X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공동체 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은 Z세대가 860점(SD=0.650), M세대가 2.896점(SD=0.720), X세대가 3.153점(SD=0.733), 베이비부머세대가 3.160점(SD=0.687)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14.727(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에 공동체 의식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178점(SD=1.007), M세대가 3.291점(SD=0.992), X세대가 2.996점(SD=1.094), 베이비부머세대가 2.982점(SD=0.923)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4.497(p<.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M세대는 다른 세대에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차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사회문제 관심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관심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602점($SD=1.050$), M세대가 2.392점($SD=0.968$), X세대가 2.168점($SD=0.874$), 베이비부머세대가 2.258점($SD=0.793$)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9.050(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M세대는 다른 세대에 사회문제 관심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사회문제 노력 수준 차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문제 노력 수준의 평균은 Z세대가 472점($SD=1.000$), M세대가 3.281점($SD=0.962$), X세대가 3.095점($SD=0.985$), 베이비부머세대가 3.134점($SD=0.939$)으로 분석되어 차이를 드러냈다.
-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6.156(p<.001)$ 로 나타나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후분석 결과, Z세대는 다른 세대에 사회문제 노력 수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X세대와 베이비부머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 세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 이는 대체로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젊은 층에서 더욱 확장시키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실제 현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회적경제는 약간 구세대 이미지인데 반해, 소셜벤처는 상대적으로 참신한 인식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
 - 판로 개척등을 위해서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X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평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현재 구매력이 높은 집단이므로,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등에 타겟 수요 집단으로 상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그래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베이비부머세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공동체 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공동체 의식이 높으면 잠재적 사회적경제 활동가로서 가능성이 있다.
 -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를 사회적경제의 공급주체로 유도하면, 사회적경제의 공급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

- M세대는 다른 세대에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 수준 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평가 수준은 낮지만,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이 높다는 점은 사회적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M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확장 될 수 있다.
- M세대는 다른 세대에 사회문제 관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앞서 살펴본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이 가장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기에 사회적경제 참여 활동 적극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M세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원칙을 공유하기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공급이자 수요주체라고 볼 수 있다.
-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사회문제 노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MZ세대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사회적경제 참여활동 적극성이 높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사회문제 노력 수준도 높다.
 -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주체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세대별로 다른 특성을 지니기에, 사회적경제는 수요자 또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공급자 또는 활동가(기업가)로서 세대별로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이수지. (2020.1.8.). 「마케팅을 위한 세대탐험」, KAA저널, p.2.
- 한결, 김희현. (2021). 「Z세대 타겟 디지털 광고전략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9, pp.19-20.
- 엄경희, 엄태경. (2020). 「2020-2030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제품 선호도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341에서 재인용.
- 최인수, 윤덕환, 채선애, 송으뜸. (2020). 트렌드모니터 2020, 시크릿하우스, pp.12-36.
-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스.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pp.1-6.
- Newman, N., Fletcher, R., Kalogeropoulos, A., & Nielsen, R. K. (2019).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19.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Retrieved from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inline-files/DNR_2019_FINAL.pdf.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pp.1-6.
- Shatto, B., & Erwin, K. (2016). Moving on from millennials: Preparing for generation Z.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pp.253-254.

MZ세대의 사회적경제 수요·공급측면 잠재성 탐색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조주연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전화 82-(0)2-353-3553
팩스 82-(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연구진들의 의견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MZ세대의 사회적경제 수요-공급측면 잠재성 탐색

가치소비자 측면과 사회혁신 주체측면을 중심으로